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을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  
 현순덕(여, 1932년생, 성산을 오조리)

• 줄거리: 밤에 유채 걷으러 갔다가 본 도깨비불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저 먼 밧디 강 유채를 비언 이제 비가 오람직 허난, 그땐 가빠가 잇िका 멍석 뒤  
 언 오난, 경애 하르바님이,

“야 날 굿인다. 경 어둑허걸랑 지영 오라불라. 지영 오라불라.”

이젠 경애 밥허고 경일허고 경자가 이제 나 쫓아갓어. 이젠 그 멍텅이에, 유채  
 두드린 걸 지어 아전 오난, 이제 애기자국 물 잇지 안혀냐? 그디 오란 저착 저  
 바당무루 동산으로, 무시게 번뜩헌 게 사발 만헌 한 사발이 아니라 낭푼이라.

나 도체비 경 행 두 번 봤저. 퍼딱퍼딱 불 번직허난, 아이덜은 짐은 께영 허는  
 디, 짐을 훈 말 썩 지는 아이덜이 옆덩이 몸뻘 바짝 심언,

“어멍 저거 무신 불이꽈? 무신 불이꽈?”

헤연, 도체비엔 허민 아이덜이 더 놀레카부덴,

“거 무시거 벨 털어지젠.”

“무신 벨이 정 큼네젠? 낭푼이만 허우다. 낭푼만 허우다.”

아메도 관대로 허는 낭푼이라 요만헌 것에 허단, 이제 송리산에 동산 잇지 안  
 혀냐? 애기자국에 그디 오건 또 파작작 짐수막에서 봐난 게 잇어.

아이고, 경 행 그디서 똬이 찰찰 행 저 백문동산 그 쉬는디 잇잖여. 그 돌에  
 그디 오란 쉬어네. 아이고 제우 숨 쉬노렌 허난, 요디 누게 어멍이 쉼 안 들어오  
 나네 쉼 일러비언 나오랏수덴 허멍, 백문동산에 가네 그 어른?라,

“그레 가지맙서. 도체비 잇언 파지직 착 했수다.”

허멍, 나 그추룩 도체비 두 번 봐낫덴 허난.

- 핵심어 : 애기자국, 짐수막, 바당무루 동산, 낭푼만 헌 불, 백문동산, 쉼, 도체비, 도깨비, 송리산